

한 3개월만 기다려 주세요 스피드·힘 키워 오겠습니다



4년만의 스프링캠프 앞둔 한기주 '부활 프로젝트' 돌입

27일 서울서 '자선 레스토랑'

KIA의 한기주가 '부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지난 몇 년의 겨울, 부상으로 신음하며 재활관에 머물렀던 한기주가 내달 15일 시작되는 KIA의 스프링캠프에 함께한다. 4년만의 스프링캠프를 기다리고 있는 한기주는 그에 앞서 28일 필리핀 마닐라로 떠난다. 포수 백용환과 함께 따뜻한 곳에서 위문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부활 프로젝트'의 시작, 그는 약 2주 간의 자체 캠프를 통해 스프링캠프를 위한 최적의 몸을 만들 생각이다. 운동·피칭 스킬도 이미 다 짜놓았다.

KIA 한기주는 올 시즌 긴 기다림을 끝내고 마운드에 돌아왔다. 지난 7월16일 LG를 상대로 공을 던지면서 1064일 만에 1군 무대를 밟은 그는 올 시즌 7경기에 나와 승패 없이 3.2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8월8일 NC전서 그의 2015시즌 마지막 경기였다. 길지는 않았던 시즌이었지만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는 자체로 의미가 있던 2015시즌이었다. 팔꿈치, 손가락 그리고 어깨까지 성한 곳 없던 한기주의 복귀였기 때문이다.

불 같았던 김승규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는 모른다. 그래도 한기주는 멈추지 않는다. 올 시즌 오랜만의 실전이라 밸런스와 경기감각을 찾느라 고전했지만 최고 145km를 찍었다. 스피드와 힘을 모두 더하고 싶은 게 한기주의 바람이다.

한기주는 "올 시즌 아프지 않고 마운드에 돌아왔다는 게 중요하다. 오랜만에 캠프를 참여하게 됐는데 긴장되고, 기대도 된다. 캠프에 앞서 따뜻한 곳에서 공을 던지면서 준비를 할 생각이다. 경기 감각도

많이 떨어졌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캠프 잘 치러서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부활을 위한 걸음을 떼는 한기주는 매년 이어온 사람 나눔도 잊지 않았다. 지난 2012년 12월 안치홍(경찰청), 김현수(두산), 이원석(상무)과 함께 서울에서 일일호프를 열고 사람 나눔을 시작한 그는 이번에는 '자선 레스토랑'을 열고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기주는 "올해로 다섯 번째 행사를 하게 됐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팬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살고 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도 자리를 마련했다"며 "좋은 일을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행사에 참가하는 선수들 모두 그라운드에서 좋은 모습으로 팬들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행사에 빠지지 않았던 김현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준비하느라 이번 모임에는 빠지지만 팀 후배인 백용환, 이흥구, 홍건희, 한승혁, 박찬호가 가까이 행사에 함께해 '일일 웨이터'로 변신한다. 또 한화로 이적한 임준섭과 한기주의 동성고 동기 최주환(두산)이 걸음을 한다. 경찰청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안치홍도 휴가를 맞아 특별 게스트로 행사장을 찾는다. 김주일 kt 응원단장은 행사 진행을 맡는다. 행사를 통해 모은 수익금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는 27일 오후 5시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알랭'에서 열린다. '자선 레스토랑' 참가를 원하는 이는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hofhope)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2년 '자선 레스토랑'에 참석한 이원석, 김현수, 한기주, 안치홍 선수(왼쪽부터).

"박병호 내년 27홈런"

예측시스템 ZiPS 전망... "강정호 16홈런"

통계전문가인 댄 짐보스키가 고안한 야구 예측시스템 ZiPS(SZymborski Projection System)가 박병호(29·미네소타 트윈스)의 2016 시즌 성적을 타율 0.266, 27홈런, 84타점으로 예상했다.

WAR(대체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은 2.3으로 박병호를 평범한 선수보다 팀에 2.3승을 안기는 타자로 평가했다. 짐보스키는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병호의 4년 예상 성적을 올렸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2016년 성적이다. 짐보스키는 박병호가 주전자리를 꿰차 133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봤다. 그리고 553타수 147안타(타율 0.266), 27홈런, 84타점, 80득점이란 준수한 성적을 예상했다. 출루율은 0.333, 장타율은 0.463으로 전망했다. 메이저리그 루키에게는 무척 후한 평가다.

ZiPS는 선수들의 미래 성적을 예상하는 통계 프로그램 중 하나다. 해당 선수의 최근 4시즌을 분석해 미래를 예측한다. 짐보스키는 한국프로야구에서의 성적과 박병호와 비슷한 과거 선수를 정해 '같은 나이로 치른 시즌 성적'을 통해 예상 성적을 보정했다. 그는 박병호가 시즌을 더할수록 미세하게 홈런과 타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ZiPS는 박병호의 2017년 성적을 타율 0.267, 27홈런, 82타점으로 예상했다. 2018년에는 타율 0.266, 25홈런, 77타점, 2019년에는 타율 0.262, 22홈런, 70타점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통계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은 이에 앞서 ZiPS 시스템으로 전망한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2016년 예상 성적을 게시했다. ZiPS는 강정호와 추신수에게 다소 박한 점수를 줬다. 피츠버그 내야수 강정호의 내년 성적은 타율 0.252, 16홈런, 61타점으로 전망했다.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이었던 윌해 강정호는 타율 0.287, 15홈런, 58타점을 기록했다. 무릎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 마감하지 않았다면 홈런과 타점은 더 늘어날 수 있었다. ZiPS는 2015시즌 시작 전,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첫 시즌 성적을 타율 0.230, 14홈런, 57타점으로 예상했지만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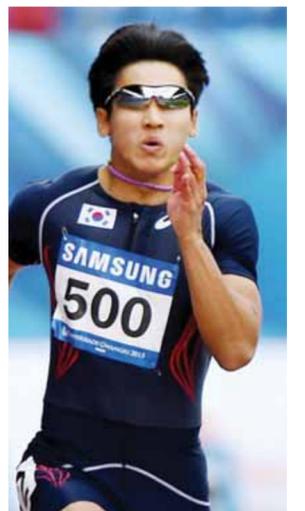
텍사스 외야수 추신수의 2016년 성적은 0.264, 15홈런, 53타점으로 전망했다. 윌해를 앞두고 ZiPS는 타율 0.260, 14홈런, 48타점을 예상했으나 추신수는 후반기 대활약으로 타율 0.276, 22홈런, 82타점을 기록했다.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계약을 눈앞에 둔 김현수는 '갑'에 의한 예상 성적만 나오고 있다. 현지 언론은 '20홈런', '타율 0.270' 등을 2016년 김현수의 기대 성적 혹은 예상 성적으로 내세웠다. 윈 어깨 통증으로 복귀 시점이 불투명한 윈슨 투수 루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을 향해서도 야구 통계가들은 예상 성적 측정을 미루고 있다. 11월 초에 야구 통계프로그램인 스티머는 3승 3패 평균자책점 3.42, 마르셀 프로잭션은 6승 4패 평균자책점 3.48을 예상했다. /연합뉴스

김국영 육상 꿈나무에 300만원 쾌척

한국을 대표하는 스피린터 김국영(24·광주광역시청)이 후배를 위해 300만원을 쾌척했다. 한국중고육상경기연맹은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김국영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열었다.

김국영은 지난 11월 7일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15 코리아 골든스프린터 육상경기 2차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우승한 뒤 상금 300만원을 받은 후 "후배를 위해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한국중고육상경기연맹은 박미나(포항 대흥중), 박성민(영창초), 강민주(광주제중), 모일환(광주제고), 손대일(이리공고) 등 5명의 육상 꿈나무를 선발해 김국영이 기부한 상금을 전달했다. 박미나는 100만원을, 다른 선수 네 명은 50만원을 받았다. 시상상은 김국영을 대신해 정한 한국중고연맹 회장이 했다. /연합뉴스



인간새 날다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엥겔베르그 티틀리스에서 열린 FIS 스키점프월드컵에서 독일의 세브리 프로인트가 점프대에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몸값 3억달러' 다저스 사치세 516억원 냈다

올해 선수들 몸값에 3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은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사치세(luxury tax)로 역대 최고 수준인 4360만 달러(약 516억2000만원)를 물게 됐다.

20일 AP통신에 따르면, 다저스는 올해 연봉과 수당 등을 합해 총 2억9790만 달러를 선수 임금으로 지급했다. 메이저리그는 선수단 연봉 총액을 일정 금액 이상 낸 구단에 사치세를 부과한다. 사치세는 선수 권익과 리그 발전 기금 등으로 쓰인다.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4개 팀에 사치세가 부과됐다. 다저스를 이어 뉴욕 양키스가 2610만 달러의 사치세를 내야 한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180만 달러를 부과받았다. 또 올해 처음 사치세를 얻어맞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130만 달러를 물어야 한다.

4개 구단이 내는 사치세는 총 7280만 달러. 단일 시즌 사상 최고액이다.

그러나 AP통신은 "선수 몸값에 들인 돈이 성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저스는 최근 3년간 총 8160만 달러를 사치세로 냈지만, 월드시리즈에는 1988년 이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반면 올해 리그 챔피언십에 진출했던 팀은 대부분 알짜 운영을 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올해 1억3600만 달러를 선수단 임금으로 지불해 10위에 올랐다. 시카고 컵스는 1억3300만 달러로 11위를 차지했다. 월드시리즈 우승팀은 캔자스 시티 로열스는 1억2900만 달러로 13위, 준우승을 거둔 뉴욕 메츠는 1억1000만 달러로 19위에 올랐다. /연합뉴스